

작가의 그늘에 가린 편집자의 운명

잘 만들어진 양장본 문학전집이나 개인문집을 보면 대개 그 앞부분 몇면이 사진화보로 꾸며져 있다. 해당 작가의 젊은 시절 모습이나 가족관계, 교육의 범위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사진들은 글로 써어진 작품과는 또다른 의미에서 작가의 체취를 느끼게 해줘 흥미를 끄는데, 특히 文友들과 같이 찍은 사진의 경우, 작가 당대의 한 문화적 풍속도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짙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사진이 설명되는 방식이다. 주의깊은 독자라면, 가령 이런 식의 사진설명을 어디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왼쪽부터 A씨, B씨, 한사람 건너 C씨, D씨.”

쟁쟁한 작가들 틈에 끼어 이름조차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은 사진 속의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 사진을 제공한 작가의 희미한 기억력 탓도 있겠으나, 이름을 밝혀도 독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익명으로 남겨진 그 한 사람은 대개의 경우 출판사나 잡지사의 편집자이기 십상이다. 창작과 저술의 세계에서 존재는 있되 이름이 없는 편집자의 위상을 이 ‘사진 속의 건너 편 한 사람’ 처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는 달리 없다. 활자매체의 실질적인 연출자이자 중매인이면서도 저자가 독차지하는 영광과 명예의 그늘에 가려 다만 무대 뒤의 주역에 머물 뿐인, 그래서 그 역할에 합당한 대접(혹은 이해)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바로 편집자이기 때문이다.

미국 랜덤하우스사의 명편집자였던 삭스 카민즈의 삶과 업적을 다룬 「편집자란 무엇인가(What is an Editor?)」(도로시 카민즈, 시카고대출판부, 1978 : 김성재 옮김, 일지사, 1993)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흥미를 끈다. 편

창작과 저술의 세계에서 존재는 있되 이름이 없는 것이 편집자의 위상이다. 활자매체의 그늘에 가려 다만 무대 뒤의 주역에 머물 뿐인 편집자이기 때문이다. 미국 랜덤하우스사의 명편집자였던 삭스 카민즈의 삶과 업적을 다룬 「편집자란 무엇인가」에는 편집자와 파트너로서 작가들과의 교유경험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편집자의 운명적 위상을 읽을 수 있다.

집자와 편집자의 세계를 알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이 책은 특히 편집자의 파트너로서 작가들과 가진 교유의 경험이 고스란히 술 회돼 있어 시사적이다. 편집자와 작가 사이의 조화와 상충, 일치와 불일치의 솔직한 드러냄을 통해 카민즈는 편집자와 작가가 행복한 동반자 관계를 이룰 수도, ‘적과의 동침’ 관계를 이룰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삭스 카민즈는 예컨대, 유진 오닐과는 매우 행복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리브 라이브社에서부터 작가와 편집자로 만난 두 사람의 관계는 리브 라이브사의 파산으로 오닐이 자신의 작품의 출판권을 랜덤하우스社로 넘기는 대신 삭스를 책임편집자로 임명해줄 것을 요구할 정도로 돈독했다. “당시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출판사들이 가장 열망했던 ‘재산(저작권)’은 유진 오닐의 것이었다. 나는 관대하고 충실하게도 나와 의 상의와 논의 없이 어떠한 계약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더구나, 그가 고른 출판사는

그와의 계약 기간중에는 그의 담당편집자이자 총편집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나에게 보증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어떠한 희곡출판 계약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기하고자 했다.”

반면, 시오도어 드라이저 같은 작가와는 썩 사이가 좋지 않았다. 선인세를 지급받고 약속한 책을 써내지 않아 송사까지 벌였던 드라이저에 대해 카민즈는 “안고하고 난폭했으며 예의 같은 것은 전혀 몰랐었다”면서 “타고난 재능이 심성이나 성격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교제해보면 어떤 문필가들의 분별력과 감수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술회하고 있다. 카민즈는 심지어, 작가란 으레 좋은 사람일 것이라는 ‘낭만적 환상’을 깨뜨려 준 이로 드라이저를 꼽고 있을 정도다.

존 오하라와의 관계는 보다 험악했던 것 같다. 오하라 쪽에서는 “당신은 외과의사와도 같은 섬광을 눈에서 뿜어내는 게 좋을 듯합니다”라며 카민즈를 비꼬고 있다. 외설적 표현을 사제하자는 삭스 카민즈의 권유와 관련해 한번은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진 적이 있었다.

카민즈는 한편으로, 이른바 ‘대가’나 ‘거장’이 아닌, ‘자칭 작가’의 파트너로 일할 수 밖에 없었던 편집자의 서글픔을 전해주기도 한다. 자신이 아예 다 대작(代作)해준다시피 한 한 책의 성대한 출판기념회에서 명색 뿐인 작가가 파티의 주인공으로 각광받고 있는 광경을 지켜보았던 씁쓸한 경험을 카민즈는 “내빈들은 그의 책을 가지고 와서 서명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사인하고 있는 동안 내가 그의 짐으로 원고를 가져갔을 때 그가 그랬듯이 나는 얼굴을 돌려 입속으로 중얼거리고 신음에 가까운 소리를 냈다”고 전하고 있다.

출판저널

통권 제167호 / 1995년 4월 5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종환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원
 기자—정혜옥 이성수
 한 강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업무부장—운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재)한국출판공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공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천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정신세계사의 신간



잃어버린 지평선

제임스 힐튼 장편소설 류시화 옮김

Shangri-La

상그릴라를 아십니까?

“지평선이 잠깐 열릴 때, 비밀의 낙원으로 들어가라!”

1930년대 초, 네 명의 승객을 실은 비행기 한 대가 의문의 인물에게 납치되어 히말라야의 험준한 산맥 너머로 사라졌다. 비행기가 불시착한 곳은 티베트의 설산 가운데 감춰진 불가사의의 낙원 상그릴라. 상그릴라의 비밀에 접근한 그들은 새로운 운명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는데... 신비로운 감동을 안겨주는 뉴에이지(New Age) 문학의 고전 《잃어버린 지평선》.

잠깐 열린 지평선 사이로 영원한 동경의 나라 상그릴라에 들어선 세 남자와 한 여자의 운명—미스터리 기법으로 쓴 이상향 소설의 걸작! 절묘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경이의 책!

*상그릴라 : (비밀의 낙원)을 가리키는 말. 제임스 힐튼의 《잃어버린 지평선》에 처음 쓰인 이후 일반 어휘로 사전에까지 실리게 되었다. 지금도 히말라야 곳곳에는 이 상그릴라를 찾기 위해 서성거리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값 5,500원/서점에 있습니다.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대)